

## 지역(도시)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시장의 공동체화론 연구

A Study on Theory of Communization of Market for solving the regional(urban)  
environmental problems

이상헌

대통령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상임정책위원

자본이 세계적으로 이동하게 되면서 자본을 지역에 고착시키기 위해 각 지역들은 민영화 정책에 의존하게 된다. 이 경우 지역의 자연환경은 지역 내의 불균등 발전을 반영해 환경의 질 개선의 불균등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즉, 시장기제에 의존하는 지역의 성장문제와 환경문제는 부조화를 야기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안 모색이 절실한 상황이다. 시장사회주의 논쟁은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를 모두 극복해보고자 하는 노력이었다. 이 글에서는 알렉 노브, 에른스트 만델, 다이앤 엘슨의 시장사회주의 논쟁을 고찰했다. 그리고 시장 가격 형성과정과 정보를 공동체에 개방하되 소비측면에서 판매시장은 세계화되는 추세에 맡겨두고, 생산시장을 공동체화하지는 시장공동체화론을 주장했다. 시장공동체화론에 의해 소비시장과 생산시장을 분리시켰을 경우, 생산의 측면에서는 노동 분업의 조정 문제가 가장 핵심적인 관건이고, 소비의 측면에서는 욕망의 조절이 가장 큰 관건이다. 따라서 지역의 환경운동은 이 두 가지 과제를 목표로 상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주요어: 자본의 세계화, 시장사회주의, 시장의 공동체화, 노동분업, 욕망

## 1. 서론

도구적 지식이든 규범적 지식이든 인간이 만들어내는 지식은 어차피 인간 군상의 삶과 밀접하게 연계될 수밖에 없다. 인간은 지식을 자신의 삶의 정황에 투영해 삶을 개선시키고 개선된 삶의 조건 속에서 다시 새로운 지식을 추구할 수 있는 것이다. 인간의 모든 역사적 궤적 가운데 가장 큰 사회적 실험이었던 사회주의 실험은 현재 실패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기적인 인간의 사익 추구를 계획에 의해 통제해 보려던 사회주의 실험은 결국 실패로 돌아간 것이다. 역사의 종말을 선언하며 자본주의만이 우리가 택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이데올로그들의 주장이 판을 치고 있다.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는 이러한 경향을 더 가속화시키고 있으며, 지구적 차원의 양극화는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과연 자본주의는 인간에게 남은 유일한 대안인가? 다른 방법을 제시해 줄 이론은 없는가? 게다가 인류는 현재 더 큰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전 인류가 스스로 자신의 삶의 터전인 자연을 파괴시켜가고 있는 것이다. 이른바 전 지구적 환경위기(예컨대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 등) 문제가 또다시 새로운 과제로 주어져 있는 것이다. 지구적 환경위기는 현재의 성장 자체가 가능할는지, 우리의 생존이 과연 가능할는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 글은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이러한 두 가지 과제 중에서 특별히 지역(도시)환경문제라고 하는 매우 구체적인 실천의 장에서 현실적합성(relevancy)이 높은 이론적 접근이 무엇인지 따져보고자 한다. 따라서 먼저 현재 세계가 어떤 변화를 겪고 있는지를 서술하고 그러한 맥락 속에서 지역(도시)의 환경문제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보여줄 것이다. 그리고 나서 어떤 지식체계 혹은 논리가 문제해결에 더 적절한지를 따져보되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모두를 지양하고자 했던 시장사회주의론을 중심으로 따져보며 이론적인 보완을 해나갈 것이다.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시장사회주의론을 보완하는 이론이라고 제시한 시장의 공동체화론을 실천적 맥락에서 어떤 방식으로 적용시킬 것인가에 대한 답변으로 지역운동으

로서의 환경운동을 제시할 것이다.

## 2. 본론

### 1) 달라진 세계

자본은 생래적으로 국민경제의 틀을 벗어나 세계화된다. 자본은 쉽  
이 유동하며 이윤이 발생하는 곳을 향해 투자되고 확대되는 것이다. 또  
한 자본은 역사적으로 존재하면서 자신의 형태를 계속적으로 변환해 간  
다. 즉, 생산을 통해 잉여가치가 계속적으로 확보되는 사회관계 속에서  
는 자본이 생산수단의 형태를 띠면서 투자되었다가 위기국면, 즉 과잉축  
적이 되어 이른바 공황<sup>1)</sup>의 상황이 되면 화폐의 형태로 변환되어 유동성  
을 높인다. 유동성이 높은 화폐의 형태로 변환된 자본은, 자본과 영토로  
구획된 민족국가와의 관계에서도 변화를 가져온다. 즉, 유동성이 높아진  
자본은 기존의 민족국가 단위로 구성된 국제제도들을 재편성하는 역할  
을 한다. 최근의 자본의 세계화라는 논의와 결부시켜 볼 때 이러한 경향  
은 자본의 본래적인 속성이므로 자본은 세계화되는 것이 아니라 자본의  
지구적인(global) 존재형태에 있어서 변화가 생긴 것으로 파악해야 한다  
(Holloway, 1994). 다시 말해 최근의 자본의 지구적 존재형태는 생산수단의  
형태로 투자되던 자본이 화폐의 형태로 투자되면서 전 세계적인 금융자  
본화가 진행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할 것이다. 물론 금융자본의 국제화만  
이 1970년 이후 자본의 지구적 존재형태를 특징짓는 과정은 아니다. 거  
기에는 몇 가지 점에서 따져보아야 할 특징, 즉 정말로 자본의 존재형태  
가 이전(以前)과 다른가 하는 점에서 따져봐야 할 쟁점이 있다. 첫째, 생

1) 물론 공황의 원인이 과잉축적에서 비롯되는 것만은 아니다. 과소소비에 의한 것  
도 지적되어야 하지만 이 글은 공황론에 대해 길게 설명하는 글이 아니므로 대표  
적인 원인으로서 과잉축적만을 언급했다.

산자본이 세계적인 규모에서 생산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경향이 있는가, 둘째, 초국적기업들(TNCs)이 세계적 생산지점들에 대해 광범위한 조정과 중앙통제능력을 발휘하는가, 셋째, 경제활동영역과 통치활동영역이 불일치하는가, 넷째, 경제활동의 세계화가 1970년대 중반 이후 계속되는 침체국면을 벗어날 수 있게 해주는가 등등이다(김용창, 1994: 86~94). 이 쟁점들에 대해 간략하게만 언급하자면 자본은 과거에 비해 지리적 유연성을 획기적으로 증가시키고 있으며(Harvey, 1991), 국제자본시장의 출현으로 이자율에 대한 주권 주장이 어려울 정도가 되었고(김용창, 1994: 90), 민족국가단위의 약화와 새로운 정치적 단위로서 지역에 대한 관심이 늘어났으며(Clarke, 1993: 1~21), 이른바 포스트포디스트(Post-fordist) 축적체제로 전환하고 있다는 점이다.<sup>2)</sup>

그러면 이런 세계 자본주의의 재구조화가 공간에는 어떻게 투영되었는가? 우선 지적할 수 있는 것은 세계 자본주의의 재구조화는 지역적 실업이 두드러진 절망의 공간과, 새롭게 금융과 보험 등 생산자 서비스가 집중하는 희망의 공간을 공존하게 만들고, 새로운 지역 불균등발전을 낳게 했다는 것이다. 이런 경향을 가장 두드러지게 보여주는 예는 세계도시라는 새로운 거대도시의 출현에 주목하고 그 안에서 일어나는 새로운 발전의 가능성과 그 이면(裏面)에 존재하는 사회공간적 양극화를 보여주는 연구들이다(Sassen, 1991; Fainstein, Gordon & Harloe, 1992; Mingione, 1993). 세계도시 안에서는 대체적으로 전통적인 제조업이 쇠퇴하고 생산자 서비스 산업이 입지해 기존의 퇴락했던 도심지역이 다시 부활(gentrification)된다. 또한 중간소득집단이 감소하고 여피적 생활을 하는 전문직 상위계층이 늘어나고 무주거자(homelessness)가 동시에 늘어나서 극단적인 사회

2) 김용창은 당위론보다는 자본주의의 현실법칙에 근거한 중요한 논의로서 워커(Walker, R)가 말하는 분업논의에 초점을 맞출 것을 주장한다(김용창, 1994: 93). 한편 워커의 논의를 보려면 Walker(1993)를 참조할 것. 노동의 분업과 조정의 문제는 사회주의권의 몰락 이후에 자본주의의 미래를 어떤 식으로 구축할지에 대한 논의의 핵심을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이 글이 주로 시장사회주의 논쟁을 다루는 것도 이런 문제의식에서 비롯된다.

적 양극화 현상이 일어난다(Sassen, 1991: 250~256).

물론 지역 혹은 도시의 재구조화는 각 지역 혹은 도시마다 차별적으로 일어난다. 이러한 차별성을 가져오는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는 정치적 요소의 개입이다. 자본의 힘이 곧장 지역 혹은 도시로 들어온다 해도 국가의 대응과 지역의 재구조화는 나라마다, 그리고 지역마다 다르게 일어나는데 그 중요한 변수가 바로 정치적 요소이다. 괴츠(E. G. Goetz)는 세계화 경향과 지역화 경향이 매개되는 것이 국가의 재구조화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했으며, 국가의 재구조화를 수직적 재구조화와 수평적 재구조화로 분류하고 있다. 전자는 국가와 지방정부 사이의 관계가 변모하는 것을 의미하고 후자는 주로 지방정부의 민영화 과정을 통해서 국가기구의 성격이 변모하는 것을 의미한다(Goetz, 1993: 199~220).<sup>3)</sup> 지역환경문제와 관련지어서 이러한 정치적 논의가 갖는 중요성은 도시정부(혹은 지방정부)가 시장기구 의존적인 민영화정책을 통해서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할 때—다시 말해 경제적 성장을 통해 정치적 정당성을 보장받으려 할 때—발생하는 환경문제의 악화경향(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지만)과 이에 대응하는 지방주민들의 정치적 참여능력 여부와 관련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는 환경이 정말 악화되었는지, 아니면 개선되었는지에 대한 경험적 연구를 통해 검증될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 수준의 논의를 전개하는 이 글에서는 생략하고 다만 일반적인 지역재구조화가 환경문제에 갖는 함의에만 초점을 맞출 것이다.

앞서 지적했듯이 자본의 세계화로 인해서 사회적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이에 따라 부추겨진 도심재개발현상은 부동산자본으로 하여금 새로운 토지개발을 촉진시키며 당연히 도시의 토지 이용에도 큰 영향을 끼치게 된다. 새롭게 형성되는 토지가격을 감당하기 어려운 제조업체 등은 도시의 외곽지역이나 다른 용도지역에 침투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그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교통/통신망의 흐름과 혼잡이 예상된다. 그리고 세

3) Goetz의 논의를 인용하면서도 비판하고 있는 글로는 강명구(1994: 223~244) 참조.

계적으로 이동하는 자본을 지역에 붙잡아두기 위해서 민영화 정책에 의존함으로써 각 지역들의 공공성은 자연히 이윤이나 효율성에 자리를 내주게 된다. 그 결과 지역(도시)의 자연환경이 특정지역에 국한해서 개선되고 그렇지 않은 곳에는 계속 나쁜 수준으로 유지된다. 다시 말해서 지역 내의 지역적 불균등 발전에 수반해 환경의 질도 지역적 불균등을 따라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계속 재생산된다. 자본의 논리가 더 냉엄하게 관철되는 세계화경향과 지역정부의 정당성 확보를 위해 시장기제에 의존하게 되는 민영화논리는 불균등하게 나타나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지역 환경문제를 전반적으로 악화시킬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시장기제에 의해 맡겨진 지역의 성장문제와 환경문제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 시장기제에 대한 대안이 있는가? 과거 시장기제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되었던 사회주의적 계획경제는 이미 실패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면 시장도 아니고 계획도 아닌 제3의 길이 있는 것인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아래에서는 사회주의 계획경제를 개혁시키는 방안으로 마련되었던 시장사회주의 논쟁을 고찰하고 그 논쟁의 한계와 극복 방안을 지역환경문제 해결이라는 실천의 장에서 적용시켜 현실적합성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 2) 새로운 사회: 시장사회주의 논쟁을 중심으로

### (1) 계획인가, 시장인가?

시장자본주의에 대한 사회주의자들의 비판은 주로 경제적 효율성과 사회적 정의의 차원에서 제기되었다(Przeworski, 1991: 100~135). 첫째, 시장은 생산의 무정부상태를 초래하기 때문에 부존자원의 낭비를 가져온다는 것이다(마르크스, 1989: 667). 둘째, 자본주의는 생산과 사용을 분리시킴으로써 생산의 목표(이윤의 극대화)와 소비의 목표(소비자 복지의 극대화)가 일치하지 않게 되고 이는 생산과 소비가 분리되지 않은 경우에 비해 효율적이지 못하다(임혁백, 1994: 201). 셋째, 시장은 협동보다는 경쟁 특

히 이기적인 이익추구를 위한 경쟁을 부추김으로써 효율적인 사회적 조정을 저해한다(임혁백, 1994: 201).

시장에 대한 윤리적인 비판은 기본적으로 시장이 인간관계를 물신화해 비인간적 관계로 만든다는 마르크스의 논의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자본주의의 사적소유제도는 생산수단의 소유자에게 불로소득을 보장하고 정치를 자본소유주의 결정에 복속시킴으로써 인민주권의 원리에 위해가 되며 결국 정치적 자유를 손상시킨다는 것이다(임혁백, 1994: 202).

그러나 시장자본주의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된 계획사회주의의 마스터플랜은 결국 실패했다. 가장 중요한 원인은 공적 소유제도와 계획이 행위자들의 이기적 이익추구를 제거하지 못할 때, 즉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경제적 인간을 공동체적 복지를 우선시하는 사회주의적 인간으로 변모시키지 못할 때 계획은 실패하게 되고 제시한 청사진은 실현되지 않는다(임혁백, 1994: 203). 이외에도 정확한 생산량, 생산비용, 한계비용 등에 대한 정보가 소통되지 않는 것과 계획자를 감시할 사람이 없다는 문제 등이 계획사회주의의 실패 원인들로 꼽힌다. 이러한 계획사회주의의 실패에 대한 대안들 중의 하나로 제시된 시장사회주의는 공적 소유제를 견지하면서 자원배분에서 시장기구를 도입하려는 시도이다. 시장사회주의 논의가 본격화된 것은 시장과 자본주의를 분리해서 보기 시작했던 영국의 페이비언 소사이어티 그룹들에 의해서이다. 이들은 자본주의에는 반대하되 시장에는 찬성하는 사고를 적극적으로 개진했다(Miller, 1989: 25).<sup>4)</sup> 시장사회주의와 관련해서는 두 가지 차원에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첫째, 시장사회주의는 어느 정도 계획사회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가? 둘째, 실제로 어느 정도 극복했는가? 전자의 질문은 이론적인 차원의 문제로 2차에 걸친 사회주의 계산논쟁<sup>5)</sup>으로 이어졌으며, 후자의 질문은 헝가

4) 시장사회주의 전반에 대한 자세한 논의로는 위의 저서 외에도 Miller(1990), 최은영(1994) 등을 참조할 것.

5) 1920년대에서 1940년대까지 계속된 사회주의 계산논쟁의 핵심은 사회주의 하에서 부분적 시장의 도입(노동시장과 소비재 시장)만으로 중앙계획자가 자본주의 하에서와 동일한 시장기능을 가진 의사시장을 조성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

리와 유고의 경험에서 어느 정도 답변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결론부터 먼저 소개하자면 일차 사회주의 계산논쟁의 결과로 사회주의의 정체성이 증명되었으며, 헝가리와 유고의 경우의 각기 독특한 시장 사회주의도 결국 실패한 것으로 드러났다. 즉, 유고의 노동자 자주관리 사회주의에서는 자주관리기업의 수를 늘임으로써 자본이동을 저해하고, 채투자보다는 노동자 개인 소득 향상에 치중했다. 따라서 노동자들의 개인소득은 상향 유연성과 하향경직성을 나타내고 이는 실업과 인플레이션을 유발했다. 헝가리의 경우는 자본시장이 배재되었을 때, 코르나이가 지적한 이중의존현상이 출현했다. 즉 국영기업은 수직적으로는 관료에, 수평적으로는 공급자와 수요자에 의존하는 이중의존에 의해 움직이는 것이다. 이는 시장경제가 가진 유연성이라는 장점을 누릴 수 없게 만들었다(임혁백, 1994: 212~216; Kornai, 1992: 504; 스키라츠키, 1990; Milenkovitch, 1984). 이 글에서 주로 다루고자 하는 것은 페이비언 소사이어티 그룹들이 본격적으로 시장사회주의를 논의하기 이전에 있었던, 2차 사회주의 계산논쟁이라고 할 수 있는—알렉 노브(Alec Nove)와 에른스트 만델(Ernest Mandel), 그리고 다이안 엘슨(Diane Elson)의 지상(誌上) 논쟁이며, 그 논쟁을 통해 나온 시장사회주의의 개혁안을 도시(지역)환경론 구성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발전시키고자 한다.

## (2) 시장사회주의 논쟁과 그 평가

노브의 실현가능한 사회주의 이론에 따르면 시장사회주의가 자본주의와 구별되는 것은 생산의 조직이지 자원배분 방식이 아니라고 한다. 시장사회주의 체제에서는 자본주의와 달리 사적소유기업이 존재하지 않고

---

를 둘러싸고 전개되었다. 폰 미세스(von Mises. 여기에 하이예크도 포함됨)와 랑게(Lange) 사이에서 벌어진 이 논쟁에서 랑게는 결국 시장사회주의 하에서 정태적으로 효율적인 배분을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을 이론적으로 보여줌으로써 사회주의 경제가 정태적으로 비효율적인 배분을 초래한다는 오스트리아 학파의 비판에 결정타를 가했다. 그러나 그 승리가 곧 시장사회주의의 정체성이 동태적 혁신을 가로막고 있음을 자인했음은 미처 예견하지 못했다(조원희, 1991: 177~180). 이외에도 임혁백(1994: 205~209)도 참조할 것.



국영기업, 사회적 소유기업, 협동조합기업이 지배적인 형태로 존재한다(Nove, 1983; 1986: 51~63). 그러나 시장사회주의에서도 시장과 경쟁에 의한 자원배분 방식이 일반적으로 적용된다는 점에서 자본주의와 차이가 없다. 국가는 낭비적 경쟁을 최소화하고, 공공재를 공급하며, 외부경제를 없애는 데 주력해야 한다. 결국 시장을 전폭 수용하고 계획을 최소화하는 것이 노브의 견해이다.

이에 대해 만델은 중앙계획의 문제점은 계획 그 자체가 아니라 계획 과정에 나타나는 관료주의에 있다고 지적하면서 응수했다(Mandel, 1986). 그는 필요의 위계서열을 제시하면서 이윤의 만족이 아닌 필요의 만족을 위해서는 시장이나 중앙계획 관료기구가 아닌 제3의 길을 모색할 것을 주장했다. 그가 제시한 것은 민주적 중앙 계획과 노동자 자주관리인데 민주적으로 선출된 전국 노동자-인민 평의회(congress of national worker's and popular councils)가 자원배분에 대한 거시적 틀을 세우고, 세부계획은 하부 단위의 노동자평의회가 민주적으로 결정하는 것이다(Mandel, 1986: 32~37). 그가 제시한 것은 탈중심화된 민주주의적 사회주의 모델이라고도 할 수 있다.

만델의 반박에 노브는 다시 자신의 논지를 명확히 한다(Nove, 1987).<sup>6)</sup> 노브의 핵심 논지는 계획이 필요한 부문과 시장 메커니즘이 필요한 부문의 구획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그는 탈중심화된 관리(혹은 계획)에서도 중앙계획이 필요한 부문이 있다고 주장(전력, 철도선로 시스템 등)하지만 경제 전반은 탈중심화되어야 한다고 본다. 그래야 소비자와 생산자로서 가능한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만델은 화폐의 매개가 필요 없는 선물경제(贈物經濟)에 가까운 모델을 주장하는데 이것은 너무 조야하고 너무 단순한 경제 모델이라는 것이다.

만델과 노브의 논쟁에 대해 엘슨(D. Elson)은 시장의 사회화를 주장한

6) 한편, 만델과의 논쟁과 별도로 자신의 입장을 간략하지만 분명하게 주장한 글은 노브(1990: 203~223)를 참조할 것. 이 글에서 노브는 국가의 중앙계획이 꼭 필요한 부문이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사회주의적 통화론(socialist monetarism)을 주장하며 국가기능을 최소화시킬 것을 제안한다.

다(Elson, 1988: 3~44). 엘슨은 마르크스가 상품물신성을 비판한 것에 기초해 시장의 사회화 논의를 전개하고 있다. 마르크스의 상품물신화 비판은 판매와 구매 자체를 비판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인간과 독립되어 자율성을 가진 것으로 나타나는 현상을 비판한 것이다. 마르크스의 상품물신화 비판을 이렇게 해석하면, 화폐를 매개로 해 상품이 교환되면서도 그것이 독립적인 생명을 갖지 않는—즉 물신화되지 않는—사회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놓는다(Elson, 1988: 4). 엘슨은 노브와 만델의 시장사회주의를 각각 비교하면서 장단점을 논의하고 있다.

노브를 비롯해서 일반적으로 시장을 옹호하는 사람들이 간과하는 것은 시장이 정보를 비용 없이 제공한다는 가정이다(예를 들어 하이예크). 그러나 시장의 작동에도 비용이 든다. 예컨대 상인도 먹어야 판매를 할 수 있는 것이다. 무조건 계획은 비용이 들고 시장은 그렇지 않다는 것은 편견이다(Elson, 1988: 10).

한편, 시장과 중앙계획에 대한 만델의 대안은 접합된 노동자들의 자주관리(articulated workers' self-management)인데 이 시스템은 비시장적이며 탈중심적인 조정체제이다. 그런데 만델의 주장이 갖는 약점은 시장뿐만 아니라 가격까지도 무시하는 데 있다(Elson, 1988: 11). 만델은 화폐, 구매, 판매를 점차 없애고 기초 필요를 만족시킬 수 있는 재화의 직접적이고 자유로운 배분을 주장하나, 가격이 없어지면 계획의 첫 단계도 추진될 수 없다. 왜냐하면, GNP의 배분도 동일한 기준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시장뿐만 아니라 가격까지 부정하는 만델이 계획기구에서 만드는 가격(shadow price, 잠재가격)을 인정하는 지는 모호하다. 그러나 어떤 종류이든 가격은 필요한 것이다(Elson, 1988: 23~24).

엘슨은 두 사람의 논의를 비판하고 종합적으로 극복하기 위해서 가격형성을 사회화할 것을 주장한다. 현재 가격 고정(형성)과정이 기업에 속해 있는데, 이럴 경우 기업-가구(家口)간 불균형을 초래한다. 왜냐하면 가구가 가격 형성과정에 참여할 수 없을 때 기업은 임금통제로 노동자를 통제하기 때문이다. 이런 불균형은 가격 형성과정을 사회화함으로써, 특

히 단위비용과 한계이윤을 공개함으로써 극복될 수 있다(Elson, 1988: 21). 사회화된 시장은 공공기구에 의해 구성되는데, 판매보다 세금으로 재정을 충당하며, 공식적인 시장기구나 계획당국과 달리 제3의 네트워크인 ‘보이지 않는 악수(invisible shakehands)’에 의해 중재된다.<sup>7)</sup> 그리고 이렇게 사회화된 시장에서는 각기 상이한 부문간 정보 네트워크에 자유로이 접근할 수 있다. 시장사회화의 주요한 초점은 공공시장 형성자(예를 들어 ‘가격임금위원회’ 같은 공공기구<sup>8)</sup>)에 의해 정보의 교류가 일어나는 것이다. 정보 네트워크는 시장/관료제와 다르고 하청과도 다른데, 정보 네트워크의 초점은 가격이나 비용이 아니라 양과 재화의 특성, 그리고 생산과정이다. 네트워크 조정자의 기능은 재화의 디자인과 선정, 그리고 생산과정에 있어서 정보 교환의 촉진, 정보 공개의 장려, 상호 매개적 역할이다(Elson, 1988: 35).

엘슨은 이러한 가격 형성 정보의 공개적 접근을 여러 시장에 적용한다. 노동시장의 경우 노동의 분업은 존재하지만(정신/육체노동) 비자발적 실업은 없어질 것이고, 생산재 시장의 경우 기업 간 거래가 주종이므로 기업이 제공하는 정보의 질이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기업들의 혁신을 장려하기 위해 기술은행(모든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한 은행임)에 신기술의 세부사항을 적치할 경우 요금을 주는 것이 필요하다(Elson, 1988: 39). 엘슨은 소비재의 경우 소비자 조합이 가구-기업의 조정을 담당해서 상품 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예를 들어 어떤 상품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기회균등, 생산조건이 인간적인가 등에 대해서도 평가해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한다(Elson, 1988: 40).<sup>9)</sup>

7)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은 시장을 말하고, 쉐들러의 보이는 손은 관료제를 말한 것에 대비해, 오클은 보이지 않는 악수라는 표현으로 비공식적(인간)관계를 나타내었다(Elson, 1988: 22 참조).

8) 엘슨이 제안하고 있는 가격임금위원회가 해야 할 일은 ① 정보의 상호교환을 위한 기구를 제공하는 일. ② 가격 형성과정이 투명해서 공개적으로 체크할 수 있도록 해야 함. 이를 위해 가격임금위원회는 단위비용에 관한 정보가 필요함. ③ 가격과 임금의 형성을 지도하는 데 가격과 임금 규범을 만들어 판(구)매자가 스스로들 감시하게끔 하는 것이다(Elson, 1988: 32~33).

결국 엘슨의 논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정보에 대한 공개적 접근이다. 즉, 상품의 단위비용, 한계비용 등의 정보 등을 공개함으로써 기업이 주도권을 쥐고 있는 상품가격 형성 메커니즘이 아니라 가구도 하나의 주체로 참여하게 되는 가격 형성 메커니즘이 되는 것이다. 또 시장의 자원 할당 기능은 그대로 두되 가격 형성과정의 기업 독점에서 오는 소외를 극복해, 신뢰성, 상호성 등이 시장 메커니즘에 적절한 도덕적 제한을 가하게 될 것이고, 임금, 가격위원회, 소비자조합 등이 중재를 가하는 것이 논의의 골자이다.

엘슨의 논의는 두 가지 점에서 한계를 갖는다. 첫째는 그녀의 논의가 일국적 담론에 그치고 있다는 점이다.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자본이 세계적으로 자유롭게 이동하는 상황에서 일국의 시장을 사회화한다는 논의는 다소 적합성이 떨어지는 논의가 될 수 있다. 둘째 문제는 그녀의 논의가 소유권 문제에서 기인한 시장의 단점(착취, 집중, 집적, 독점 등)을 제거하는 데 몰두해 있어서 정작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노동의 분업 혹은 분화의 문제를 간과하고 있다는 점이다.<sup>10)</sup> 노동의 사회적(혹은 공간적) 분업이 새로운 사회 형성에 있어서 핵심적인 이유는 자본주의든 사회주의든 혹은 사적소유이건 공적소유이건 관계없이 현대사회가 점차 다양한 노동에 의해 분화되고 복잡해지기 때문이다. 사회의 복잡성 증가를 이론적으로 가장 심화시킨 루만(N. Luhmann)은 사회가 여러 가지 체계(system)로 점점 분화되면서 복잡해지는 경향이 있다고 했는데,<sup>11)</sup> 그의 이

9) 엘슨은 이러한 논의가 생태사회주의(Eco-socialism)적 관점과도 관련이 있다고 지적한다. 생태사회주의에 대해서는 이상헌(1993; 2003)을 참조할 것.

10) 이러한 점은 Sayer & Walker (1992)를 참조했다. 특히 마르크스주의가 노동의 분업을 간과한 점에 대해서는 236-238쪽 참조.

11) 루만 이론의 출발점은 환경과 체계의 구분인데 그가 말하는 환경은 비합리적 영역이고 복잡하며, 이 환경이 체계 속으로 계속 침입하는 것이 문제다. 따라서 현대 사회학의 과제는 이 복잡성을 축소(reduction)시키는 일이다. 뒤르켐의 영향을 받은 파슨스(T. Parsons)의 체계 이론과 달리 니체, 하이데거 그리고 베버의 영향을 받은 루만은 체계의 통합을 믿지도 전제하지도 않는다. 그는 애초에 차이가 존재했고, 이 차이를 통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본다. 비합리적이며

론이 엘슨의 논의에 대한 비판일 수가 있는 것은 과도한 분화가 시장의 사회화를 불가능 혹은 무기력하게 할 수 있다는 점이다. 즉, 조정(coordination)의 불가능성을 지적하고 있다는 점이다.<sup>12)</sup> 좀더 부연하자면 시장의 독점과 집중, 집적, 착취의 문제에 논의의 초점을 맞추는 것은 반대측면의 현실, 즉 노동이 분화되어 있어서 조정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다는 측면을 간과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따라서 엘슨의 시장사회화 논의를 보완하려면 우선 자본 세계화 경향에 대응해 시장의 단위를 재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며, 다양하고 복잡하게 분업화된 시장을 어떻게 조절해야 될 지에 주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이런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것을 우리는 ‘시장의 공동체화(communization of market)’라고 이름붙일 수 있을 것이다. 시장의 공동체화란 정보의 공유를 특정지역에 국한시키되 일단 시장을 두 가지로 나눠서, 주로 소비측면에서 판매시장은 세계화되는 추세에 맡겨두고 생산시장은 공동체화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때 공동체라는 것은 민족국가가 있을 때, 민족국가의 부분 단위로서의 지방, 생태적 단위로서의 지역과 달리 세계화 시대에 적합한 사회 단위로서의 공동체라고 할 수 있다. 생산시장을 공동체화 한다는 것은 그 공동체의 생태적 조건에 맞는 노동의 종류나 산업의 종류를 선정하고 생산조직을 구성하며, 노동과정을 형성하는 것을 말한다.<sup>13)</sup> 블랙번(R. Blackburn)도 이와 비슷하게 시장이 자율노동집단과

---

복잡한 환경인 사회를 관찰하고 연구하는 것은 오직 기능적으로 등가(functionally equivalent)인 체계들을 통해서만이 가능하고 그래서 체계이론이 필요하다는 것이 루만의 논지이다(Luhmann, 1989; Zolo, 1986: 129~134). 루만의 등가적 기능주의는 들뢰즈(G. Deleuze)와 과타리(F. Guattari)의 입장과 상통한다. 그들은 스스로를 기능주의라고 부르고 있으며 체계이론적 기능주의가 실패한 이유는 바로 전체 속에 기능을 집어넣었기 때문이라고 한다(들뢰즈, 1993: 50~51).

12) 밀러(M. Miller)의 경우 루만에 대해 그가 체계간의 사회적 소통능력을 과소평가했다고 보고 특별히 환경문제 해결에 있어서는 체계간 의사소통적 능력을 재조명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Miller, 1994: 101-121).

13) 대표적인 예로 제3이태리 지역을 들 수 있다. 제3이탈리아 지역에 대한 간략한 소개는 Amin(1989)을 참조할 것.

지역사회의 압력을 통해 ‘아래로부터’도 사회화되어야 하며 이것을 ‘아래로부터의 시장사회화’라고 했는데 이는 시장의 공동체화와 비슷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Blackburn, 1991: 57).

지금까지의 논의를 바탕으로 아래에서는 지역(도시)환경문제가 과연 어떤 것인지, 그리고 시장의 공동체화란 것이 과연 지역(도시)환경문제 극복에 도움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방식을 통해 극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 3) 공동체화된 시장과 지역(도시)환경문제의 전망

#### (1) 지역(도시) 환경문제란 무엇인가?

앞서 살펴본 대로 자본의 세계화와 이에 따른 지역 재구조화는 지역의 자연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지역 혹은 도시 토지 이용의 왜곡 현상 때문에 교통/통신망의 흐름과 혼잡이 야기되어 차량소통에 의한 대기오염을, 또 토지의 집약적 사용과 효율적 사용 요구 때문에 지하공간 사용이 확대되어 지하오염을 도시의 독특한 환경오염으로 특징지운다. 그리고 이른바 이중도시(dual city) 혹은 분할도시(divided city)라고 이름붙여진 (세계) 도시의 사회적 양극화 때문에 의료, 교육, 보건, 주택 등의 공공복지도 지역별로 차별적으로 배분되어 결국 환경질의 불균등 문제가 제기된다.<sup>14)</sup> 더군다나 민영화정책에 의해 지방정부가 공공부문에까지 시장기구를 도입하게 될 경우 이러한 차별적 배분에 의한 환경질의 불균등현상은 더 커질 전망이어서 새로운 지역(도시) 환경문제로 제기될 것이다.

그러나 더 심각하게 생각해봐야 할 문제는 복잡성의 증가로 인한 대규모 재난의 위험성이 지역(도시) 환경문제를 구성할 가능성이다. 예를 들어 한 도시 전체에 대한 모든 파이프라인이나 전기배선에 대해 파악하고 이에 대한 통제를 항시적으로 하고 있지 않는 한—혹은 한다고 해도

14) 우리나라의 경우는 최병두(1994: 45~91)를 참조할 것.

-사소한 실수로 인해 큰 재난을 초래할 수 있다.<sup>15)</sup> 이렇게 복잡성이 늘어난 것 때문에 발생한 재난이 앞으로 도시환경문제의 중요한 구성요소가 될 것이다. 앞서 언급한 루만이 현대사회의 각 체계들이 비합리적 환경을 끊임없이 체계화시키더라도 그 복잡성을 다 축소할 수 없다고 했듯이, 정보/통신이 고도로 발전한 현대사회에서 통제의 가능성은 점점 약해지고 이들 각 체계들의 조정의 문제는 매우 절박한 사항이 된다. 결국 노동의 분업을 어떻게 조정하느냐 하는 조정의 문제를 포함해서, 복잡해진 도시의 네트워크가 붕괴됨으로써 발생하는 재난을 어떻게 막느냐하는 것이 도시환경문제 해결의 중요한 요소로 등장하게 될 것이다.

## (2) 지역(도시)환경문제 해결의 관건

지금까지의 논의에 기반해서 볼 때, 도시의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사항이 고려되어야 한다. 첫째, 현재 지역(도시) 환경문제를 거론할 때 자본 세계화와 재구조화경향 그리고 민영화 정책 등을 중요한 맥락으로 고려해야 한다. 둘째, 지역(도시)환경문제를 극복하는 방법의 주요한 준거를 계획에 의존할 것인지 아니면 시장에 의존할 것인지를 따져 보아야 한다. 이런 점에 근거해 우리는 지역이 재구조화되고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주요한 해결책의 방향을 시장의 공동체화에서 찾았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지역(도시)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생산과 소비측면으로 나눠서 살펴보기로 한다.<sup>16)</sup> 우선 시장의 공동체화 논의에 따라서 생산의 측면을 고려해보면, 노동의 분업 조정문제가 중요한 관건으로 대두된다.

15) 1994년 12월 초 서울시 아현동에서 일어났던 도시가스 폭발사고는 이러한 사고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16) 지역(도시) 환경문제를 다룰 때는 소비 측면에 더 초점을 맞출 것이다. 특별히 도시의 경우는 소비의 중심지이기 때문이다. 소비가 생산을 증개하고 새로운 생산에 대한 필요를 자극하는 것 역시 소비라는 점은 마르크스의 통찰이기도 하다 (Marx, 1973: 91~92). 따라서 지역(도시)환경에 적합한 생산방식이나 조건을 찾는 데 있어서 소비를 강조하는 것도 무리는 아닐 것이다.

### ① 생산의 측면: 노동분업의 조정 문제

자본주의사회건 기존 사회주의사회건 사회에는 수많은 종류의 상품이 공존하고, 노동의 분업이 시공간상에 넓게 분포되어 있으며, 생산과 소비의 연계는 극히 간접적인 방식으로(특히 자본주의에서는 더 심하게) 맺어져 있는 것이 사실이다(Sayer & Walker, 1992: 253).<sup>17)</sup> 이렇게 다양하게 노동이 분화되어 있다는 의미는 자원할당에 있어서 외부성의 발생가능성이 많으며 이를 통제해야 할 필요성이 높다는 뜻인데, 자원의 남용이 환경문제를 야기한다는 점을 생각해 볼 때 이의 조정문제가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됨을 알 수 있다. 또 지역 혹은 도시의 환경문제에는 노동의 분업을 포함한 복잡성의 증가로 인해 발생하게 되는 재난이 포함되기 때문에 노동의 분업을 지역의 생태적 조건에 맞게 조정하는 문제가 매우 심각한 과제로 등장한다. 따라서 생산부문을 지역에 맞게 구성할 때 가장 중요한 문제로 등장하게 되는 것은 다양하게 분업화되어 있는 노동을 어떤 식으로 조직하고 조정하며 배분하느냐의 문제이다. 즉, 어떤 상품이 생산되고 어떤 생산 공정이 도입되며 어떤 생산조직이 형성되느냐에 따라 그 도시의 환경오염 발생양태는 다르게 규정되고 당연히 해결방안도 이에 맞게 도출되어야 하는 것이다.

### ② 소비의 측면: 필요 그리고 욕망의 문제

시장의 공동체화 논의에 따라 판매 시장을 세계적인 자본의 흐름에 내맡겨놓았을 경우 지역 혹은 도시의 환경문제와 관련해 제기되는 문제는 소비 측면에서 주민(혹은 시민)의 필요를 어떻게 만족시키고 욕망의

17) 생산과 소비가 간접적으로 연계되었다는 것은 생산과 소비가 분리된 데서 연유한다. 마르크스는 자본론에서 분업 문제를 다룰 때 소유권 문제에만 주안점을 두었기 때문에 생산과 소비 사이의 분업이 사회주의 사회에서 해소될 것이라고 보았던 것이다. 그러나 분업에는 물질적 차원이 존재한다. 다시 말해서, 다양한 상품이 서로 상이한 형태와 질로 존재하기 때문에 이에 관한 정보를 중앙의 단일한 계획에 의해서 다 조정할 수 없게 된다(Sayer & Walker, 1992: 252). 즉 소유권의 문제가 해결된다고 해도 노동의 분업이 갖는 물질적 차원 때문에 조정의 문제는 여전히 남는다.



문제를 어떻게 통제하거나 조절하느냐 하는 것이다. 필요란 경제적이고 윤리적인 차원에서 인간의 생존에 가장 기초적으로 요구되는 것으로서 마르크스가 말하는 사용가치가 바로 이 필요의 관점에서 정의된다.<sup>18)</sup> 이런 의미에서 필요란 다분히 복지의 문제로 파악될 수 있다. 그러나 욕망의 경우는 이와 다르게 문화적인 차원에서 설명이 되어야 한다. 욕망이란 여러 가지 얼굴을 하고 있는데, 우선 인간과 자연, 인간과 인간 간의 노동에 근거해 사회의 형성을 설명하는 다분히 생산주의적이고 합리주의적 패러다임에 반(反)해, 비합리적이고 충동적이며 그러면서도 혁명적인 가능성을 내포한 잠재력의 형태를 띠기도 한다(강내희, 1993: 11~48).<sup>19)</sup> 하지만 또 한편으로 욕망은 가장 쉽게 상품화된다. 개인의 정체성이 소비(그리고 소비공간)에 의해 구축되는 이른바 포스트모던 사회에서는 소비행위가 이전의 노동의 지위를 차지하게 된다(Shields, 1992: 1~17). 즉 노동을 통해 생산관계 속에서 차지하는 계급적 지위 대신 소비에 의해 구축되는 정체성이 개인의 사회적 지위를 규정한다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논의를 전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소비가 갖는 규정력이 이전의 생산패러다임에서 간과했던 것 이상으로 심각해지고 중요해진 것은 사실이다.<sup>20)</sup> 소비가 이렇게 중요한 사회적 규정력을 발휘할 때,

18) 아그네스 헬러(1990: 22), 서규환(1993) 등을 참조할 것. 서규환에 따르면 마르크스의 필요(그는 욕구라고 함)개념 중 급진적 필요는 혁명의 요구와 연결되고 따라서 소유권 문제의 해결과 직결된다. 이러한 견해는 정당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글에서는 필요의 개념을 일반적인 의미에서 소요(wants)와 혼용해서 쓸 수 있는 복지적(福祉的) 차원에서의 필요개념으로 사용하기로 한다.

19) 욕망의 혁명적 성격을 가장 극대화한 것은(미화한 것이 아니라) 들뢰즈와 과타리(Deleuze, & Guattari, 1983)다. 이들은 욕망을 사회의 하부구조라고 해 욕망의 생산성을 강조했으며 프로이트가 비록 이러한 욕망의 생산성을 발견했다라도 그것을 가족 내에 한정시켰기 때문에 욕망을 가족 드라마 수준으로 낮추어 놓았다고 비판한다(들뢰즈, 1993: 42~43).

20) 산업화된 선진국가에서는 소비가 사회적 가치로 자리 잡고 있다. 그리고 소비 사회의 출현을 보여주는 지표로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세계적으로 20세기 중반이후 구리와 에너지, 육류, 철강, 목재의 1인당 소비량은 약 2배로 늘었고, 1인당 자동차 소유와 시멘트 소비량은 4배, 플라스틱 소비량은 5배, 알루미늄 소비량은 7배, 그리고 항공여행 거리는 33배나 증가했다(더닝, 1994: 24).

소비의 촉진에는 욕망의 기제가 개입한다. 소비사회의 자본은 더 편리하고 더 깨끗하고 더 아름답고 더 쾌적하고 더 새로운 상품을 더 많이 소비하도록 사람들의 욕망을 자극한다. 현대의 여러 가지 매체들을 통한 광고는 욕망을 끊임없이 부추겨서 이를 상품화한다. 즉, 욕망의 만족을 상품 소비로 국한시킴으로써 자본의 순환을 가속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욕망은 소비라는 문화적 차원의 논의를 갖고 있다는 면에서 앞에서 논의했던 필요와 구별된다.

지역(도시)환경문제의 해결이라는 맥락에서 시장공동체화 논의를 욕망과 필요의 관점으로 조망한다는 것은 첫째, 소비 측면에서 어떻게 욕망을 조절할 것인가의 문제로 이어진다. 판매 시장이 세계화된다는 것은 세계적 문화의 유입이 자유롭다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소비의 가속화가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소비의 가속화는 자원의 남용을 가져오기가 쉬우며,<sup>21)</sup> 이럴 경우 어떻게 하면 상품의 소비를 통한 욕망 충족을 대안적 방식을 통한 욕망 충족으로 변화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가 환경문제 해결의 중요한 관건으로 제기된다.

둘째, 세계적 자본의 전횡으로 인해 불균등하게 충족될 대중의 필요를 어떻게 고르게 만족시킬 것인가가 중요한 관건이 된다. 더군다나 지방정부가 민영화정책을 통해 관리기능을 민간으로 넘기게 될 때, 복지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필요의 문제는 시장에서의 구매력에 따라 차별적으로 해소될 것이다. 즉 앞에서 언급했듯이 민영화 경향은 환경이라는 공공재를 지역적으로 차별화시켜 놓을 것인데 환경이라는 것은 필요의 중요한 근거가 되기 때문에 환경이라는 필요의 만족이 계층별로 달라진다

21) 비록 생산수단의 절약에 의한 내포적 확대재생산이라는 생산방식(황태연, 1992: 82쪽)에 의해 생산된 상품의 소비라고 해도 절대적인 양의 증가는 자원의 남용을 가져오게 된다. 절대적인 자원의 한계를 설정하는 것이 이론적으로는 문제가 있을 수 있으나 기술적으로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가능성과 기술의 실천적 사용에 의해 한계가 극복되는 현실과는 거리가 있다. 즉 자본이 친환경적인 기술개발에 투자를 하지 않는다는지, 아니면 사용하지 않을 경우 자원의 (역사적인) 한계는 분명히 존재해 당대의 사회구성체의 환경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다.

는 점이다.

따라서 소비 측면에서 지역(도시)환경문제 해결의 방향은 문화적 차원에서 욕망의 재조직화와 복지적 측면에서 필요의 균등한 보장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욕망의 재조직화와 필요의 균등한 보장은 지방정부의 계획 보다는 지역(도시)주민들의 자발적 운동에 의해 달성될 수 있다. 왜냐하면 친환경적인 삶의 양식을 창출하는 것이 요청될 경우 기초적인 필요를 억압하거나 미리 위에서 아래로 지정해주어 차별화시키는 방식, 혹은 선전 선동과 세뇌 등의 강압적 수단에 의해 욕망을 억압할 경우 조직적인 저항이 체제의 붕괴를 불러일으킨다는 것을 우리는 목격했기 때문이다.<sup>22)</sup> 따라서 가능하면 아래로부터의 운동을 통해 이상적 담론상황에서 도출될 수 있는 합의를 지향해서 그 구도 속에서 합의되는 욕망을 형성해야 하고 필요 충족의 방식을 선택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지역에서 전개되는 환경운동이 지금까지 논의된 맥락에서 어떻게 구성되고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해 논의하기로 한다.

### ③ 지역(도시)환경운동의 진로

생산방식이나 조직을 지역의 생태적 조건에 맞게끔 형성하고 세계적 자본의 이동에 맞서서 지역(도시)의 환경을 지키기 위해서 무엇보다 절실히 요청되는 것이 소비부문에서 욕망의 통제 문제이다. 과연 욕망이 통제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욕망은 억압기제에 대한 해방적 잠재력을 가짐과 동시에 억압기제에 쉽게 이용당할 수 있는 취약성도 함께 가지고 있다. 따라서 지역(도시)환경을 지키기 위해서는 생활세계에서의 담론적 실천을 통해 끊임없이 욕망을 조절해야 하는 것이 요청된다. 즉, 하버마스(J. Habermas)적 의미의 이상적 담론 상황에서 지역(도시)의 환경 문제 해결을 목표로 해 욕망과 관련한 합의(어떤 수준에서 어떤 방식으로 욕망을

22) 아그네스 헬러, 페렌 페허, 귀요기 마르쿠스는 기존 사회주의가 몰락하기 전 사회주의의 가장 심각한 문제로 바로 이 점을 지적했다. 자세한 내용은 Heller, Feher, & Márkus(1984)를 참조할 것.

충족시킬 것인가에 대한)를 계속적으로 추구해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목표를 달성하는데 시장의 공동체화논의가 도움을 줄 수 있다. 즉 정보의 공유를 통해 사회적 소통능력을 제고시키고 제고된 소통능력을 통해 환경적으로 적절한 수준의 문화를 형성하는 것이 바로 욕망의 문제를 통제하는 것이 될 것이다.<sup>23)</sup>

또한 필요의 문제에 있어서 발생하는 불평등의 문제도 더불어 운동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 시장의 공동체화가 적용될 때 나타날 수 있는 간과되기 쉬운 문제는 바로 민주주의의 결여 문제이다. 즉, 노동의 분업을 조절하고 욕망의 통제를 통해 환경문제를 해결한다고 할 때, 필요의 만족이 불균등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저항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시장사회주의 논의는 앞서 언급한 한계(복잡성 통제에 대한 논의를 결여한 점) 외에도 시장의 독점 경향을 막는 장치가 충분히 논의되어 있지 않다는 약점을 가지고 있다(최은영, 1994: 49~72). 즉, 정치적 민주주의의 확보가 경제적 민주주의에도 적용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환경을 구실로 한 환경독재(Eco-fascism)를 막을 수 있으며 지역의 진정한 발전이 보장되는 것이다.

자본이 세계화되고 기업가적 정부가 자본의 유치를 위해 환경을 파괴하는 행위를 할 위험에 대해 시민운동차원의 감시와 제재가 필요한 것이다. 더 나아가서 이러한 운동은 참여적 민주주의를 확보하는 차원으로 발전해야 하는데, 이러한 목표를 위해서 환경운동은 지역운동으로 확고히 자리 잡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지역환경운동의 나아가야 할 방향은 생산측면에서는 자본의 노동 분업 재편성과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

23) 르페브르(H. Lefebvre)는 일상생활의 소비를 조장하는 관료사회의 전략을 타개하는 것이 문화혁명이라고 했다. 즉, 경제제도나 이데올로기 비판을 넘어서서 일상생활의 무의미한 반복을 끊는 근본적인 변혁을 의미한다(Saunders, 1986: 160-162). 르페브르의 이러한 논지는 이탈리아 아우토노미아(autonomia) 운동의 주창자 네그리(A. Negri)의 저술에서도 발견된다. 네그리는 투쟁의 장이 공장에서 생활세계로(네그리는 이것을 제2의 자연 또는 생태학적 기계라는 말로 표현한다) 확대되어 간다고 역설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네그리(1991: 116~131)를 참조.

오염에 대한 감시기능이며, 소비측면에서는 이러한 친환경적 생활양식의 뿌리가 되는 욕망을 형성하는 합의 도출이 되어야 할 것이다.

### 3. 결론

자본의 세계화와 국가의 재구조화를 통한 지방화 그리고 민영화 등 세계 자본주의의 재구조화로 인해 지역 혹은 도시의 환경문제는 전반적으로 위협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위협받고 있는 지역(도시)의 환경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위에서 우리는 ‘시장사회주의’의 이론적 보완으로서 ‘시장의 공동체화’라는 이론적 체계가 실천의 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생산시장과 판매시장의 분리를 통해 지역의 생태적 조건에 알맞은 노동의 분업을 조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 시장의 공동체화가 갖는 내용이다. 그러나 이 논의는 지역운동으로서의 환경운동이 적극적으로 생산과 소비 그리고 정치에 참여함으로써만이 완결점을 찾을 수 있는 것이다. 결국 우리는 다시 요원한 길에 접어들고 말았다. 욕망의 수준까지 합의에 이르려면 얼마나 먼 길을 가야할 것인가? 그러나 유토피아에 대한 꿈은 인류가 결핍을 느끼는 이상 사라지지 않는다. 우리가 기대야 할 곳은 어쩌면 우리가 끊임없이 결핍을 느끼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에 있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에른스트 블로흐가 한 다음의 말은 아직도 여전히 유효하다.

“기실 인간이라면 누구나 결코 좌절되지 않고, 스스로에 의해 행복을 선택할 수 있다는 희망을 품고 있으리라. 유토피아가 인간의 모든 행위에 그렇게 강렬하게 전달되는 것만큼, 그것은 그 정도로 넓게 영향을 끼친다. 아닌 게 아니라 인간과 세상에 대한 모든 지식은 근본적으로 유토피아라는 기본적 소재를 함축하고 있다. 어떤 리얼리즘이 ‘완결되지 않는 무엇’으로서의 현실 속에 이러한 강력한 요소가 담겨 있다는 사실을 부정한다면, 그것은 리얼리즘이 아니다”(블로흐, 1993: 308).

## Abstract

Lee, Sang-Heon

As capital has been globalized, each region(or city) has tendency to rely upon privatization strategies to capture the moving capital. In this case, uneven development of regions is apt to penetrate into the sphere of environment. To correct the uneven development of regions and environment, we have to overcome the disadvantages of capitalism and socialism at the same time. The scholars who have suggested market socialism have tried to overcome the shortcomings of those system but market socialism still has several flaws in its theory. This paper suggests communization of market as an alternative. If we follow the theory of communization of market, coordination of division of labor and management of desire would be the main goals of regional environment movement.

Key words: globalization of capital, market socialism, communization of market, division of labor, desire

## 참고문헌

- 강내희. 1993. 「육망이란 문제설정」. 『문화과학』 3호, 11-48. 문화과학사.
- 강명구. 1994. 「지방화시대의 지방자치」. 한국공간환경연구회, 『지역불균형연구』. 한울.
- 김용창. 1994. 「자본의 국제화와 거대도시의 재구조화 그리고 서울」. 『공간과 사회』, 통권 4호. 한울.
- 서규환. 1993. 「맑스의 욕구이론, 그 해체와 재구성에 관한 노트」. 『문화과학』 3호, 73-96. 문화과학사
- 스지라츠키. 1990. 「헝가리 기업에서의 내부도급제」. 엘스터, 피네 편저, 노응원 옮김, 『시장사회주의』. 비봉출판사.
- 아그네스 헬러, 강정인 옮김. 1990. 『마르크스에 있어서 필요의 이론』. 인간사랑.
- 안토니오 네그리, 장현준 옮김. 1991. 『전복의 정치학』. 세계일보사.
- 알렉 노브. 1990. 「자본주의와 시장사회주의에 있어서 중앙계획의 역할」. 엘스터, 피네, 노응원, 『시장사회주의』. 비봉출판사.
- 앨런 테인 더닝, 구자건 옮김. 1994. 『소비사회의 극복』. 따님.
- 에를스트 블로흐, 박설호 옮김. 1993. 『희망의 원리』. 솔 출판사.
- 이상헌. 1993. 「한국 환경운동의 이데올로기와 주체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_\_\_\_\_. 2003. 『세상을 움직이는 물-물의 정치와 정치생태학』. 도서출판 이매진.
- 임혁백. 1994. 『시장, 국가, 민주주의』. 나남.
- 조원희. 1991. 「시장사회주의의 체제동학에 관한 일고찰」. 『현상과 인식』. Vol. 15(4): 173-189. 한국인문사회과학원.
- 질 들뢰즈. 1993. 「반-외디푸스에 관한 이야기」. 질 들뢰즈, 김중호 옮김, 『대담』. 솔 출판사.
- 최병두. 1994. 「환경문제의 사회공간적 불균등」. 한국도시연구소, 『지방자치시대의 도시생활환경』(자료집)
- 최은영. 1994. 「시장사회주의 논쟁의 전개와 그 논리」.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석사논문.
- 칼 맑스, 김수행 옮김. 1989. 『자본론 1』. 비봉출판사.
- 황태연. 1992. 『환경정치학과 현대정치사상』. 나남출판사.
- Amin, A. 1989. "A model of the small firm in Italy." in *Goodman & Bamford, Small firms and industrial Districts in Italy*. London; New York : Routledge.
- Blackburn, R. 1991. "Fin de Siècle: Socialism after the Crash." *New Left Review*, No. 185, pp.5~67.

- Deleuze, G. & Guattari, F. 1983. *Anti-Oedipus: Capitalism and Schizophrenia*.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 Elson, D. 1988. "Market Socialism or Socialization of Market?" *New Left Review*, No. 172, pp.3~44.
- Fainstein, S.S., Gordon, I., & Harloe, M. 1992. *Divided Cities: New York & London in the Contemporary World*. Cambridge, MA :Blackwell
- Goetz, E. G. & Clarke, S. E. (eds). 1993. *The New Localism: Comparative Urban Politics in a Global Era*. Newbury Park, Calif.: Sage Publications
- Harvey, D. 1991. "Flexibility: Threat or Opportunity?" *Socialist Review*, Vol.21(1), pp.65~77
- Heller, A., Feher, F., & Márkus, G. 1984. *Dictatorship over need*. Oxford: Basil Blackwell
- Holloway, J. 1994. "Global Capital and the National State." *Capital and Class*, 52. Spring, pp.23~43.
- Kornai, J. 1992. *The Socialist System: The Political Economy of Communism*.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Luhmann, N. 1982. *The Differentiation of Society*.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 \_\_\_\_\_. 1989. *Ecological Communication*.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Mandel, E. 1986. "In Defense of Socialist Planning." *New Left Review*, No. 159 (Sep./Oct.), pp.5~38.
- Marx, K. 1973. *Grundrisse*. Baltimore: Penguin Books.
- Milenkovitch, D.D. 1984. "Is Market Socialism Efficient?" in Zimbalist, A., (ed) *Comparative Economic Systems*. Kluwer-Nijhoff Publishers.
- Miller, D. 1989. "Why Markets?" in Le Grand, J., & Estrin, S., (ed), *Market Socialism*. New York: Clarendon Press.
- \_\_\_\_\_. 1990. *Market, State, and Community: Theoretical Foundations of Market Socialism*. New York: Clarendon Press.
- Miller, M. 1994. "Intersystemic Discourse and Co-ordinated Dissent: A Critique of Luhmann's Concept of Ecological Communication." *Theory, Culture, & Society*, Vol.11, pp.101~121.
- Mingione, E. 1993. "The New Urban Poverty and the Underclass: Introduc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Urban and Regional Research*, Vo.17(3), pp.324~326.
- Nové, A. 1983. *The Economics of Feasible Socialism*. London: George Allen & Unwin.
- \_\_\_\_\_. 1986. *Socialism, Economics and Development*. London: Allen & Unwin.
- \_\_\_\_\_. 1987. "Markets and Socialism." *New Left Review*, No.161, pp.98~104.
- Przeworski, A. 1991. *Democracy and Market*. Cambridge;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Sassen, S. 1991. *The Global City: New York, London, Tokyo*. Princeton N. J.: Princeton University Press

Saunders, P. 1986. *Social Theory and Urban Question*. 2nd Edition, London: Hutchinson Publication

Sayer, A., & Walker, R. 1992. *The New Social Economy: Reworking the Division of Labour*. Cambridge MA: Blackwell

Shields, R. 1992. "Spaces for the subject of consumption." in Shields, R., (ed), *Lifestyle Shopping: The subject of consumption*. London: Routledge

Walker, R. 1993. "The Hidden Dimension of Industrialization: an expanding division of labour." *Futures*, Vol.23(July/August), pp.673~693.

Zolo, D. 1986. "Function, Meaning, Complexity: The Epistemological Premises of Niklas Luhmann's 'Sociological Enlightenment'" *Philosophy of the Social Sciences*, Vol.16, pp.115~127.

